

해남군, 아라마크·대한조선과 지역농산물 공급 협약 체결

구내식당 식재료 등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안정적 공급 “농가 소득향상·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해남군은 10일 글로벌 기업인 아라마크(아라마크(주) 최대 기업체인 대한조선(주)과 해남농수특산물 이용촉진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아라마크(주) 심성호 대표이사, 대한조선(주) 정대성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아라마크(주), 대한조선(주)은 로컬푸드 소비확대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농수특산물 이용 촉진 및 상생발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라마크(주), 대한조선(주)은 구내식당 식재료, 행사 기념품, 명절선물 등에 로컬푸

드와 해남농수특산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해남군은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계 20여개국에 지사를 확보하고 있는 아라마크사는 푸드서비스 전문 업체로서 1988년 서울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1993년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선수단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을 통해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뽑힌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법인은 매출액 1,100억원대, 사원수 638

명으로 단체급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해남군 화원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2022년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7억8,000만 달러 규모의 선박 10척 수주하는 등 해남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교육원 및 기숙사 등을 갖추고 약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형 조선소이다. 해남 쌀 납품을 시작으로 점차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 식재료 전반으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군 최대 기업인 대한조선과 글로벌 기업인 아라마크에 우리군의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업이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대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업무협약 체결 (좌로부터 아라마크(주) 심성호 대표이사, 명현관 해남군수, 대한조선(주) 정대성 대표이사)

장흥군, 소상공인팀 신설 지역경제에 활력 높인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장흥군은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 따라 2023년 1월 1일자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팀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정남진장상사방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남진장흥도요시장 49개 점포에서 전력 계약 초과 사용량에 대한 부과금(150% ~ 200%)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을 접하고 수전설비 변압기를 교체(증설) 완료했다.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약전력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상인들의 전기요금에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와 민심을 살피어 머뭇머뭇한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강진 차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강진군은 문화재청의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차 공모에 ‘강진 월출산 차문화 전승공동체의 활성화와 제다(製茶)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이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이 강한 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의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전승활동(교육)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는 지난 12월에 실시되었다. 군은 국비에 지방비 1억 원을 추가로 투입

해, 2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종목인 ‘제다’의 지속가능한 전승 토대를 마련하고,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월출산 제다 전승 문화의 조사연구 ▲금릉월산차와 백운옥판차 제다 지식 전수교육 개발 ▲지역 전승공동체의 조직화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차문화 확산을 위한 차소품과 달빛차회 행사 등을 운영하며, 수행 기관은 ‘이한영차문화원’이다.



했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진의 우수한 차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금릉월산차, 백운옥판차는 고유성, 역사성, 학술성 등의 측면에서 브랜드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강진 차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이축, ‘수산의 날 특별전’ 30일까지 진행

완도군에서는 전복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의 날 특별전’을 실시한다. 특별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축’(www.wandofood.go.kr) 기획관에서 큰 전복(7~11미, 1kg)을 구입 시 건당 5000원 할인 쿠폰과 20,0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전복이 높은 품질임에도 4~5월 대량 출하로 인한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뿐만 아니라 4월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오전그린광장에서 ‘전복 직거래 장터’를 열고, 5월 4일 개최하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TV 프로그램 유치, 인기 유튜버 연계 수산물 홍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완도 수산물을 만나 보시길 바란다”면서 “어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및 홍보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전복은 전국 생산량 대비 75%를 차지하며,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륨, 칼슘,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한 것은 물론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도 좋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린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스탬프 랠리 이벤트 개최

진도아리랑, 진도북놀이 체험 완주자에게 ‘여가 진도여 1’ 책자 제공

진도군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연계해 ‘진도 문화유산 6종 스탬프ラリー’ 이벤트를 개최한다. 스탬프ラリー는 진도 문화유산인 진도아리랑, 진도씻김굿, 진도북놀이, 진도소포결구농악, 진도옛타령, 진도 서화 등을 체험하고 6종의 스탬프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탬프 미션 장소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

으로 완주자에게 ‘여가 진도여 1’ 책자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여가 진도여 1’ 책자는 진도군이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제1회 진도 바닷길 소망 포토에세이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58편을 출판한 책이다. 군은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보배섬 진도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찬란한 무형



문화유산을 즐기면서 특별한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